



보도자료

2022. 1. 4. (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담당자 : 조형연 대외협력팀장 (010-3933-3949)

이재명발(發) 기본사회 열차, 힘찬 시동

- 광역별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완료, 기본과제 해결하는 실행조직 될 것-

이재명 후보의 대표 브랜드 ‘기본사회’를 실천할 광역별 기본사회위원회가 모두 출범, 대선 승리를 향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강남훈)는 5일 오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서울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을 끝으로 광역위원회 출범식을 모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서울 출범식에는 전국 17곳의 상임위원장과 상근위원장 등 광역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출범식에 이어 대통령선거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결의대회에는 강준현, 김경만, 김남국, 김윤덕, 문진석, 민형배, 박성준, 서삼석, 서영석, 양이원영, 안호영, 위성곤, 윤영덕, 이원택, 임호선, 정일영, 주철현, 허영, 홍정민, 황운하 국회의원을 비롯해 금민, 김성용, 김세준, 김유택, 김재현, 백종덕, 이재욱, 정균승, 정인대, 전호성, 최수만 부위원장 등(가나다 순)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앞선 세대가 일구었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넘어 풍요로운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의 시대가 이재명 후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사회의 표상”이라며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의 기본사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 연령, 성별, 지역, 계층을 관통하는 시대상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임을 확신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서면으로 축하 인사를 전할 계획이며, 배우자 김혜경씨는 온라

인으로 참석해 결의대회를 축하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을 통해 전국에서 1,000여명의 당원들이 함께할 계획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기본사회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철학이자 대전환시대의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시대정신이다” 며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을(乙)기본권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본사회위원회가 앞장 서겠다” 고 밝혔다. (끝)